

포스코, 세계철광협회 '안전문화 우수기업' 선정

'도전! 안전골든벨' 프로그램 성과 인정

포스코가 21일 세계철광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안전·보건 우수인증상에서 '도전! 안전골든벨' 프로그램으로 '안전문화 리더십'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안전·보건 우수인증상은 안전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성숙도, 안전지표의 변화, 직원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철광협회 회원사 중 '안전문화 리더십', '작업안전', '공정안전', '보건'의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안전활동을 추진한 회사를 선정해 인증한다.

올해 '안전문화 리더십' 분야에는 총 30개 회사가 경쟁해 최종적으로 포스코와 아랍에미리트의 EMIRATES Steel(에미레이트 스틸), 룩셈부르크의 Tenaris(테나리스) 등 3개사가 선정되었다.

포스코는 '도전! 안전골든벨'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 포항 포스코한마당체육관에서 열린 포스코 '제 2회 도전 안전골든벨'에 포스코와 협력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

통해 직원들의 안전지식과 안전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작업현장 고위험·잠재위험 발굴 및 안전활동 참여 횟수 증

가, 불안행동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부산대병원·스타트업과 VR로 치매예방

SKT가 5G 기술로 부산시 '치매 안심구역' 조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부산대병원, 룩시드랩스와 '5G MEC 기반 VR 노인 돌봄 시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3사는 5G·VR·AI 등 최신 ICT를 접목해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지장애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참여한 룩시드랩스는 VR 기기 이용자의 시선·뇌파 등의 생체신호를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 혁신 스타트업으로,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전용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의 슈팅, 퍼즐,

기억력 게임 등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 즐길 수 있다. 기기에 부착된 센서로 수집된 시선 반응 속도나 뇌파를 AI로 분석해 인지 능력 검사가 가능하다.

3사는 SKT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5G MEC 기술, 룩시드랩스의 VR 기반 인지능력 분석 솔루션, 부산대병원 전문 의료진의 연구 경험 등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5G 시대 맞춤형 헬스케어 협력 모델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전기차 화재 명확히 밝혀야



기지 수첩

양성운 (산업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차가 2018년 4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3만1000여 대를 판매한 코나EV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

국도교통부가 차량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을 지목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에 돌입했지만 추가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해당 차량은 리콜조치를 진행하기 앞서 배터리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현대차와 배터리 공급사 LG화학의 책임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는 LG화학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그린파워충주공장에서 조립한 배터리 팩이 탑재된 일부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 결과 배터리 양(+)극과 음(-)극 분리막이 제조 공정상 손상을 입은 것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러나 LG화학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제작한 전기차 중 유독 코나EV에서만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코나EV 차량 화재는 LG화학 이외에도 더 많은 부품사를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정 별로 배터리 셀은 LG화학, 팩은 HL그린과 위(LG화학과 현대모비스 합작사), BMS는 현대캐피코(현대차 그룹 산하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전문기업), BSA는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있어 책임소재가 쉽게 가려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업 초기 미국 등에서 품질 등의 문제로 조롱받았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것이다. LG화학도 '포스트 반도체'라 불리는 배터리시장 공략을 위해 제품 결함에 대해 민감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해당 부품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찾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빨리빨리' 처리하려다보면 또 다른 불신이 쌓이게 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ysw@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48년생 자식이 자랑거리를 잔뜩 가져온다. 60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 72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84년생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다.

소 37년생 무리한 산행으로 요통이 올 수 있다. 4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1년생 적의 적은 동지와 같으니 잠시 협조. 73년생 원하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85년생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호랑이 38년생 앞면 이가 썩 빠지는 기운. 50년생 미련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라. 62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74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니 해염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돌 중 하나. 86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듯 독서.

토끼 39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51년생 돌팔매질을 하면 큰일 난다. 63년생 가뭄에 단비 오듯이 일이 해결. 75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87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뱀 40년생 상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라. 52년생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6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은 금물. 76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88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말 41년생 인생에 휴식이 필요하다. 53년생 상대방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커진다. 6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77년생 계획해온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89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말 42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54년생 위기를 겪으며 확실한 내편을 깨닫는다. 66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8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으니 잠시 지체. 90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하라.

양 43년생 나이는 공로로 먹는 게 아니라 차신을 똑바로. 5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니 당연히 더러워진다. 67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79년생 옳다 해도 생색내지 말아야. 91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다.

원숭이 44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 해야 열매. 56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68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덤벼라. 80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92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다시 마음이 혼란하다.

닭 45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7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 69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81년생 뜻은 원래하나 민만하지 않다. 93년생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조심.

개 46년생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도 시켜라. 58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 70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2년생 획기적인 발상으로 큰일을 한다. 94년생 작은 약속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돼지 47년생 진실이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 59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71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83년생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95년생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 학습형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4X3박스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3X3박스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2		6	4	9		A	5		
5	6		1	2	9	7		B		
	B	C	9	5	A	3		2	4	
3	4		1	5		C			A	
C	8	7	3	9	2	4	5	B	1	6
	9	5		6	B		3	C	8	
A	C	9		4	6		2	7		
4	7	5	1	9	2	A	8	6	B	3
	3		B	5	7			4	9	
9	4		C	1	6	3	5	8		
B	7	8	2	4		6		1		
6	3		7	9	5	4	2			

□	>	□	<	□	<	7	>	□	<	□	>	□	>	□		
9	>	□	<	6	>	□	<	□	<	□	>	1	<	□	<	□
5	>	□	<	□	<	8	>	□	<	□	>	7	>	□	<	4
□	<	□	<	3	>	□	<	5	>	□	<	□	<	8	>	□
□	<	6	>	□	<	□	>	□	<	□	>	2	>	□	<	□
□	<	4	>	□	<	□	>	3	>	□	<	7	>	□	<	□
6	<	8	>	□	<	□	>	4	>	□	<	□	>	3	>	□
□	>	□	<	7	>	□	<	□	<	□	>	2	>	□	<	9
□	<	□	<	2	>	□	<	□	<	□	>	1	<	□	<	□

정답

V	Z	P	F	G	6	8	Z	Q	E	9
L	6	9	Q	V	P	E	Z	8	Z	9
L	8	9	E	9	L	8	Q	V	P	Z
6	P	L	V	Z	9	Q	8	Z	8	E
9	Z	8	Q	8	V	Z	6	L	9	Z
9	L	8	Z	L	E	9	P	8	6	Q
8	Q	E	P	8	9	Z	V	9	L	6
9	L	8	9	P	Z	6	E	Z	V	8
Z	V	6	L	Q	8	9	L	9	8	P
P	9	Z	L	E	L	V	9	6	Q	8
8	E	L	6	Z	Q	L	8	P	9	V
Q	9	V	8	6	8	P	9	E	Z	L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김상회의四季

고부간 갈등 심한 편인살(2)

시아머니는 후딱 하면 전화를 하여 이런 저런 요구를 하면서도 아들에게는 늘 말하길 "나는 너희 잘 사는 거 밖에 아무 것도 바라는 거 없다"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얼마 전에 냉장고가 오래 되어 바꿀 때가 되었다며 계속 얘기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넘겨서였는지 꾸지람이 시작되었다. 이 때 며느리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해 놓았다. 가시 돌친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점점 소리가 높아지더니 며느리에게 욕까지 마구하는 소리를 남편이 들었다.

평생 본 적도 들은 적 없는 어머니의 이중적 행태를 본 남편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들이 흑여 잘못을 하거나 할 때도 화도 잘 안냄은 물론 험한 말 한 마디도 아끼는 모친이 별 일도 아닌 일도 아내를 몰아세우며 흥분과 함께 욕설까지 하는 것을 들었다.

결혼해서 이십년을 지내오며 아내가 힘들어하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깰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남편은 말하길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냐 한다. 어머니의 이중성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며느리의 몫이다.

이런 L여인은 신약한 편인살(偏仁殺)격 즉 효신(孝身)격 사주이다. 효신은 소썩새격 신살로서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로 인해 마음 고생이 강하다. 인수가 같은 오행으로 만날 때 편인이라 부르지만 또 다른 별칭이 효신이다. 효신격이 되는 경우는 어머니의 실수로 자식을 곤란함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하다. 부양이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기도 한다 하여 효신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부양이는 자라서 자립할 만할 때 어미부양이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58호